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 -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비교 -

Parents' Emotio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Emotional Knowledge, and Emotional Reaction :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성미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최인숙
기금부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강이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in Doctoral Program : In Suk Choi

University-funded Associate Professor &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 Kangyi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분석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reschoolers' emotional knowledge, emotional reactions and parents' emotio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ccording to their family income and sex. Subjects were 99 five-year-olds(46 low-income preschoolers, 53 middle-income preschoolers) recruited from three day-care centers and a kindergarten in Seoul and their parents. Each child was individually interviewed with pictorial tasks and parents reported on their own reactions by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low-income preschoolers were lower than middle-income preschoolers in emotional knowledge. Low-income preschoolers showed higher level of perceptions of the peer's anger in emotional reactions than middle-income preschoolers. Low-income mothers also were more likely than middle income mothers to show punitive reaction in parents' emotional reactions.

주제어(Key Words): 정서지식(emotional knowledge), 정서반응(emotional reactions),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 소득수준(family income)

I. 서론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은 아동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과 관련이 있다. 즉, 상대에 의해 표현된 정서는 특정한 행동을 변경하고 지속하거나 종결할 필요를 제시하기 때문에 상대가 표현한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Garner, Jones, Gaddy, & Rennie, 1997). 정서이해가 부족한 개인은 중요한 사회적 정보가 결여되어 타인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렵게 되고 타인도 이런 개인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여러 연구에서 정서지식이 아동의 또래수용, 친사회적 행동, 정서규제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Denham *et al.*, 1990; Garner, Jones, & Miner, 1994; Garner & Power, 1996). 또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부정적 반응은 긍정적 대처반응, 정서 조절능력 등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방해한다(Eisenberg, Fabes, Nyman, Bernzweig, & Pinuelas, 1994).

정서지식은 사회적 능력과 연관해서 다양한 유형의 정서 이해에 요구되는 사회인지적 지식의 구성요인 가운데 하나(Garner *et al.*, 1994)로,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표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정서 표현 지식'과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규범적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정서 상황 지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이해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즉, 아동은 정서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정서표현을 분류하고 정서의 원인 및 결과를 이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Denham *et al.*, 1990). Schultz, Izard, Ackerman과 Youngstrom(2001)에 따르면 아동은 정서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 문제를 많이 보이고 또래로부터 배척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또래거부를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로 정서지식의 부족을 지적한다. 게다가 낮은 수준의 정서지식은 아동이 다른 아동의 감정을 인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을 다른 아동으로부터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서지식과 함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또래의 분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아동의 분노에 대한 경험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상대의 분노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Murphy & Eisenberg, 1997).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아동은 또래사이에 생기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또래의 분노를 유발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동은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아의 정서지식과 분노와 관련된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반응이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구자들은 유아가 정서적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리고 정서반응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정서사회화의 맥락에 관심을 기울였다. 가족 내에서 정서사회화는 정서의 모델링, 아동에게 정서를 각성시키고 규제하려는 시도, 정서상태와 경험에 이름붙이는 것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Zahn-Waxler, Cummings, & Cooperman, 1984).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아동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는 부모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 반응을 탐색하고 단서, 상황, 정서적 경험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도왔다(Brown & Dunn, 1996;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Garner *et al.*, 1994).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에 있는 유아는 어떠한 정서사회화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고 해석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Garner, Robertson, & Smith, 1997; Raver & Spagnola, 2002). 특히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은 정서사회화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적 정서의 성질 때문에 부모는 종종 부정적인 통제 전략을 사용해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반응하도록 동기화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혐오스럽다고 보는 부모는 아동에게 벌을 주거나 부정적 정서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그러한 표현을 빨리 그만두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Gottman, 1997). 선행연구(Fabes *et al.*, 2001)에 따르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자녀는 정서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적절하게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각성을 높이거나 확대하는 부모행동은 아동이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Hoffman, 1994). 또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타인에게 반응할 때 더 낮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 Garner, & Power, 1996).

한편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다루어져왔다. 소비문화에 익숙한 현대 사회의 아동들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한 어려움은 또래집단에 의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없게 하고 또래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게 한다(박민선, 박성연, 1999). 선행연구(어주경, 정문자, 1999; 이은주, 이재연, 1999)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은 중류층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성취,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발달문제를 보인다.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정 내의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지어 본 선행연구(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Huston, McLoyd, & Coll, 1994)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부모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체벌을 사용하는 훈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대화보다는 명령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받지 못한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언어적 수단과 유용한 방법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더 적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가족 특성의 차이가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에 보이는 발달 및 적응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서이해가 아동이 또래나 어른들과 상호작용할 때 아동의 정서적 규제와 사회적 능력을 지지하는 사회인지의 핵심으로 보인다(Campos, Campos & Barrett, 1989; Cassidy *et al.*, 1992; Denham, 1998).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아동이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분노, 슬픔, 고통의 표시에 대해 더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런데도 저소득층과 중류층 유아에 보이는 정서지식과 정서반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국내연구가 없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경험이 저소득층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선행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반응뿐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반응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 이외에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데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고(Denham, 1998),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서적이라는 정서에 대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서이해와 정서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정서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Brody, 1985; Fabes *et al.*, 1994; Garner *et al.*, 1997)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성미영, 2006; 이혜련, 최보가, 2002; Denham *et al.*, 1994)에서는 정서지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Cassidy와 동료들(1992)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부모가 수용하는 정서유형이 다르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연구(Eisenberg, Fabes, & Murphy, 1996)에서는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4세에서 7세 사이의 여아가 남아보다 문제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Eisenberg, Fabes, Nyman *et al.*, 1994; Fabes & Eisenberg, 1992), 또래가 분노를 표현할 때 유아의 반응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도 있었다(Murphy & Eisenberg, 1997). 이렇게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지식은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반응은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은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곳의 만5세 유아 99명(남아 50명, 여아 49명)과 그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만 5세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모가 언급되기(Denham, 1998)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변인을 함께 살펴보므로 편부모를 제외하고 양부모 가정만을 고려하였다. 소득수준 별로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46명)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해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보육료 지원 대상 기

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유아를 선정하였고, 중류층 유아(53명)는 중류층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유치원에서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가정의 유아를 선정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대부분은 30대 부부의 가정이었다. 교육수준은 저소득층에서 부모 모두 고졸이 많았고 중류층에서는 부모 모두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이었다. 직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사무직(28.6%), 판매서비스직(23.8%)이 많은 반면에 중류층의 경우에는 주로 관리직(41.2%), 사무직(27.5%), 전문기술직(25.5%)이 많았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정서지식 측정

유아의 정서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Denham(1986)과 Iannotti(1985)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Garner와 동료들(1994)이 사용한 동일시 과제(identification task)와 Hoffner와 Badzinski(1989)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Garner와 동료들(1994)이 사용한 상황과제(situ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동일시 과제는 유아가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표현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유아의 정서표현 지식을 측정하는 과제로, 먼저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4가지 기본 정서가 나타난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명(%)
			저소득층	중류층
아 동	월 령 Mean(SD)		60.43(3.21)	60.34(3.32)
	성 별	남 아	19(41.3)	31(58.5)
		여 아	27(58.7)	22(41.5)
어머니	연 령 Mean(SD)		35.14(4.75)	36.25(3.10)
	학 령	중졸이하	3(7.1)	
		고 졸	26(61.9)	4(8.0)
		전문대졸	4(9.5)	3(6.0)
		대 졸	8(19.0)	34(68.0)
		대학원 이상	1(2.4)	9(18.0)
	직 업	가정주부	23(53.5)	26(51.0)
		판매서비스직	4(9.3)	
		노무직	2(4.7)	
		사무직	7(16.3)	5(9.8)
전문기술직		1(2.3)	14(27.5)	
기 타		6(14.0)	6(11.8)	
아버지	연 령 Mean(SD)		37.79(3.71)	39.08(4.00)
	학 령	중졸이하		
		고 졸	25(61.0)	1(2.0)
		전문대졸	5(10.9)	3(6.0)
		대 졸	10(21.7)	28(56.0)
		대학원 이상	1(2.4)	18(36.0)
	직 업	판매서비스직	10(23.8)	2(3.9)
		노무직	6(14.3)	
		사무직	12(28.6)	14(27.5)
		전문기술직	1(2.4)	13(25.5)
관리직		3(7.1)	21(41.2)	
기 타		10(23.8)	1(2.0)	

얼굴 표정 그림카드를 유아에게 제시하고 각 정서의 명칭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음에는 4가지의 얼굴 표정 그림카드 중 검사자가 제시한 정서 명칭과 일치하는 얼굴 표정을 가리키도록 유아에게 요구하였다. 이 때, 유아가 부여한 정서명칭이 정확하거나(예, 기뻐요, 슬퍼요) 가리킨 그림이 정답이면 2점, 유아가 부여한 정서 명칭이 행동을 묘사하거나(예, 울어요) 긍정/부정 영역만 일치하면(예, 슬픈 얼굴 표정을 가리켜야 하는데 화난 얼굴 표정을 가리킨 경우) 1점, 틀린 응답이면 0점을 부여하였다.

상황과제는 발생한 사건과 정서를 일치시키는 유아의 정서상황 지식을 측정하는 과제로,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반영하는 상황이 묘사된 그림카드를 각 정서별로 2장씩 총 8장 준비하는데, 이때 주인공의 얼굴표정은 모두 비어있다. 검사자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이 비어있는 각각의 그림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림에 묘사한 상황의 내용을 설명해주고(예, ○○는 갖고 싶었던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 설명이 끝난 후 4가지 정서가 나타난 얼굴 그림카드를 유아에게 제시하며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가 나타난 얼굴을 가리키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 유아가 가리킨 그림이 정답이면 2점, 긍정/부정 영역이 일치하면 1점, 틀린 응답이면 0점을 부여하였다.

동일시 과제를 통해 측정한 유아의 정서 표현 지식 점수(8가지 에피소드)와 상황과제를 통해 측정한 유아의 정서 상황 지식 점수(8가지 에피소드)는 각각 0~16점의 범위를 가져, 전체 정서 지식 점수는 0~32점의 범위를 가진다. 아동학 전공자 4인에 의해 평정된 정서 지식 검사의 신뢰도는 .95로 양호한 편이었다.

2) 유아의 정서반응 측정

유아의 정서반응은 Mize와 Ladd(1988), Eisenberg, Fabes, Nyman과 동료들(1994)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Murphy와 Eisenberg(1997)가 사용한 분노 유발 상황 과제를 실시해 또래의 분노 정도 지각(children's ratings of peer's anger), 친밀감(friendliness)과 주장성(assertiveness) 반응을 측정하였다. 분노유발 상황 과제는 6개의 상황(예: 유아가 우연히 친구의 그림에 물감을 쏟는 상황, 유아가 그네를 타다 우연히 친구와 부딪히는 상황; 친구가 토끼와 놀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 유아가 다른 친구랑 퍼즐게임을 할 때 친구가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 친구가 블록 탑 위에 블록을 하나 더 올리면 탑이 무너진다는 것을 유아가 설명하는 상황; 친구가 유아에게 가게놀이에서 손님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자 유아가 싫다고 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 유아와 면접자가 분노상황이 묘사된 그림카드를 보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대해 면접자가

질문을 하였다. “그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하여 유아의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반응을 유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아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어떤 느낌일까?”,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얼굴 표정들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말해 그림카드를 보고 고르게 했다. 유아가 지각한 분노의 정도에 따라 ‘아주 많이 화가 났음’은 3점, ‘많이 화가 났음’은 2점, ‘조금 화가 났음’은 1점, 그리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친밀감과 주장성 반응은 6가지 상황에 대해 검사자가 “그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했을 때 유아가 보이는 반응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에 이것을 친밀감과 주장성 차원에서 채점하였다. 친밀감 차원에서는 유아의 반응이 친밀감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예, 사과하고 쏟은 물감을 치워준다) 2점, 친밀감이나 적대감이 분명치 않은 행동을 보일 때(예, 친구 말을 무시하고 다음번에 조심한다) 1점, 적대감을 표현할 때(예, 때리거나 나쁜 말을 한다) 0점으로 채점한다. 주장성 차원에서는 유아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공격적일 때(예, 친구가 토끼를 가지고 놀 수 없다고 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때린다) 2점, 명확하게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인지 순응적인 행동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예, 교사에게 말한다) 1점, 상대의 뜻에 따르고 순응적일 때(예, 친구에게 토끼를 가지라고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논다) 0점으로 채점한다. 또래의 분노 정도 지각 점수의 범위는 0~18점, 친밀감과 주장성 점수 범위는 각각 0~12점이며 아동학 전공자 4인에 의해 평정된 유아의 정서반응 검사의 신뢰도는 .91로 양호한 편이었다.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 측정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 Fabes와 Bernzweig(1990)의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을 기초로 한 김희정(1994)의 도구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구성했다. CCNES의 문항은 부모에게 아동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나타내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함께 이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을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 처벌적(punitive) 반응, ‘정서표현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 반응’, ‘정서중심(emotion-focused) 반응’, 문제중심(problem-focused) 반응 및 ‘최소화(minimizing) 반응’의 6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후, 개별 하위유형에 속하는 반응이 평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6가지 반응 유형 가운데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유형(예, 아이의 반응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

편하다)이며, '처벌적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반응(예,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예: TV시청)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을 말한다. '정서표현격려 반응'은 유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반응(예, 속상할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이며, '최소화 반응'은 부모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주는 반응(예, 곧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준다)을 말한다. '정서중심 반응'은 부모가 아동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예, 일단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함께 재미있는 활동이나 놀이를 한다)이며, '문제중심 반응'은 아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반응(예, 아이가 혼자 잠자러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은 부정적이고 냉담한 반응으로, 정서표현격려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분류되는 CCNES는 Fabes, Poulin, Eisenberg와 Madden-Derdich(2002)에 의해 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총 1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6가지의 반응유형이 제시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7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반응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반응마다 12~84점의 점수범위를 보인다. 정서반응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반응의 Cronbach's α 값은 스트레스 반응이 .74, 처벌적 반응이 .80, 정서표현격려 반응이 .84, 정서중심 반응이 .83, 문제중심 반응이 .77, 최소화 반응이 .81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질문방법과 질문순서를 명확히 하고 그림도구의 적절성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점검하였다.

2) 조사자 훈련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외에 4명의 조사자가 유아와의 면접 및 자료의 분석과정에 참여했다. 조사자는 4년제 아동학

과를 졸업하고 아동학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조사자 훈련에서는 질문의 유형과 분석 범주의 정의와 예에 대해 설명한 후 4명의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일치율은 86%였다.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기준을 세부화했다. 이후에 다시 10명의 자료를 토대로 각 범주마다 90%가 넘을 때까지 연습했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06년 6월 저소득층과 중류층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연구대상 유아를 선정한 후 실시되었다. 유아의 정서지식과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카드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개별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서반응의 검사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부모의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CCNES 질문지를 작성해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총 137명 유아의 가정에 배부하였다. 1주일 후 조사자가 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회수된 질문지를 수거한 결과 113명 유아의 가정(어머니 106명, 아버지 105명)에서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정서지식과 정서반응의 경우에는 유아 106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양부모 가정의 유아 99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이원변량분석, 다변량분석이 사용되었다. 다변량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다중 종속변인에 의한 공변량 행렬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Bartlett-Box검증, 오차변량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Levene 검증을 통해 기본가정을 검토하였으며, 다변량 유의성 검증치로는 Pillai's Trace를 사용했다.

Ⅲ. 결과분석

1.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식 비교

유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정서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전체 정서지식이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의 정서지식 점수가 저소득층 유아의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F=5.399$, $p<.05$), 중류층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M=24.98$, $SD=2.22$)이 저소득층 유아($M=23.93$, $SD=2.32$)보다 더 높았다. 즉 정서표현지식과 정서상황지식을 모두 합한 전체 정서지식에서

〈표 2〉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식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득	성별	정서표현지식 M(SD)	정서상황지식 M(SD)	전체 정서지식 M(SD)
저소득	남아(n=19)	11.79(1.18)	11.74(1.85)	23.53(2.53)
	여아(n=27)	12.00(1.36)	12.22(1.37)	24.22(2.17)
	전체(n=46)	11.91(1.28)	12.02(1.58)	23.93(2.32)
중류층	남아(n=31)	12.42(1.50)	12.68(1.25)	25.10(2.10)
	여아(n=22)	12.32(1.32)	12.50(1.77)	24.82(2.42)
	전체(n=53)	12.38(1.42)	12.60(1.47)	24.98(2.22)
전체	남아(n=50)	12.17(1.44)	12.33(1.57)	24.50(2.38)
	여아(n=49)	12.13(1.31)	12.37(1.56)	24.49(2.28)
	전체(n=99)	12.15(1.37)	12.35(1.56)	24.49(2.32)

〈표 3〉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식 이원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정서지식	소득수준	28.040	1	5.399	5.399*
	성별	1.040	1	1.040	.200
	소득수준×성별	5.674	1	5.674	1.092
	오차	493.386	95	5.194	

*p<.05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지식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서지식의 하위 구성 요소인 정서표현 지식과 정서상황지식 각각에서는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반응 비교

분노유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반응이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정서반응 하위 구성 요소인 분노정도 지각, 친밀감, 주장성 차원에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를 보면 소득수준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의 정서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유아 정서반응의 세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분노정도 지각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89, p<.01). 즉 저소득층 유아의 분노정도 지각 점수(M=12.35, SD=2.27)가 중류층 유아의 분노정도 지각 점수(M=10.74, SD=2.98)에 비해 더 높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보다 또래의 분노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정서반응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지식과 정서상황지식에 대한 다변량 분석

변동원	Pillai's Trace	F
소득수준	.054	2.676
성별	.003	.123
소득수준×성별	.013	.604

〈표 5〉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반응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변동원	Pillai's Trace	F
소득수준	.101	3.483*
성별	.002	.071
소득수준×성별	.001	.018

*p<.05

〈표 6〉 소득수준에 따른 두 집단간 유아의 정서반응의 차이

하위척도	소득수준		t
	저소득층 (n=46) M(SD)	중류층 (n=53) M(SD)	
분노정도지각	12.35(2.27)	10.74(2.98)	2.989**
친밀감	7.50(1.99)	7.81(1.81)	-.816
주장성	4.50(1.99)	4.34(1.86)	.415

**p<.01

〈표 7〉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 평균 및 표준편차

부 모	소득수준	성 별	반 응						
			스트레스 M(SD)	차별적 M(SD)	정서표현격려 M(SD)	정서중심 M(SD)	문제중심 M(SD)	최소화 M(SD)	
어머니	저소득 (n=42)	남아	33.28 (8.35)	33.89 (7.31)	47.83 (10.04)	62.17 (10.33)	61.33 (7.55)	55.89 (9.47)	
		여아	38.71 (7.03)	39.29 (8.35)	51.21 (6.20)	58.46 (8.55)	59.54 (8.30)	58.46 (8.31)	
		전 체	36.38 (8.00)	36.98 (8.28)	49.76 (8.14)	60.05 (9.41)	60.31 (7.94)	57.36 (8.81)	
	중 류 (n=39)	남아	35.55 (5.93)	34.32 (8.15)	48.74 (10.00)	62.26 (7.62)	62.45 (6.01)	56.45 (9.00)	
		여아	31.82 (7.31)	30.91 (8.85)	48.18 (11.97)	64.50 (7.68)	63.55 (7.46)	56.45 (10.57)	
		전 체	34.00 (6.73)	32.91 (8.53)	48.51 (10.76)	63.19 (7.65)	62.91 (6.61)	56.45 (9.58)	
	전 체 (n=81)	남아	34.71 (6.92)	34.16 (7.77)	48.41 (9.92)	62.22 (8.61)	62.04 (6.56)	56.24 (9.08)	
		여아	35.41 (7.89)	35.28 (9.49)	49.76 (9.43)	61.35 (8.61)	61.46 (8.08)	57.50 (9.41)	
		전 체	35.05 (7.37)	34.71 (8.62)	49.06 (9.66)	61.80 (8.58)	61.76 (7.30)	56.85 (9.21)	
	아버지	저소득 (n=39)	남아	37.07 (7.26)	36.93 (9.13)	43.53 (14.21)	59.40 (13.30)	58.60 (9.71)	64.87 (9.73)
			여아	40.54 (7.98)	39.54 (8.88)	46.50 (8.83)	58.25 (9.17)	57.79 (8.74)	57.67 (9.73)
			전 체	39.21 (7.80)	38.54 (8.95)	45.36 (11.12)	58.69 (10.79)	58.10 (9.01)	60.44 (10.24)
중 류 (n=49)		남아	38.13 (7.61)	35.47 (9.37)	42.77 (8.63)	62.23 (8.08)	61.33 (7.58)	58.60 (10.34)	
		여아	37.95 (6.78)	34.37 (9.25)	42.11 (6.92)	56.05 (7.05)	57.11 (7.00)	57.37 (11.41)	
		전 체	38.06 (7.23)	35.04 (9.24)	42.51 (7.94)	59.84 (8.20)	59.69 (7.58)	60.44 (10.24)	
전 체 (n=88)		남아	37.78 (7.43)	35.96 (9.21)	43.02 (10.66)	61.29 (10.06)	60.42 (8.34)	60.69 (10.47)	
		여아	39.40 (7.50)	37.26 (9.30)	44.56 (8.25)	57.28 (8.28)	57.49 (7.93)	57.53 (10.38)	
		전 체	38.57 (7.47)	36.59 (9.23)	43.77 (9.53)	59.33 (9.40)	58.99 (8.23)	59.15 (10.49)	

3.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 반응 비교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전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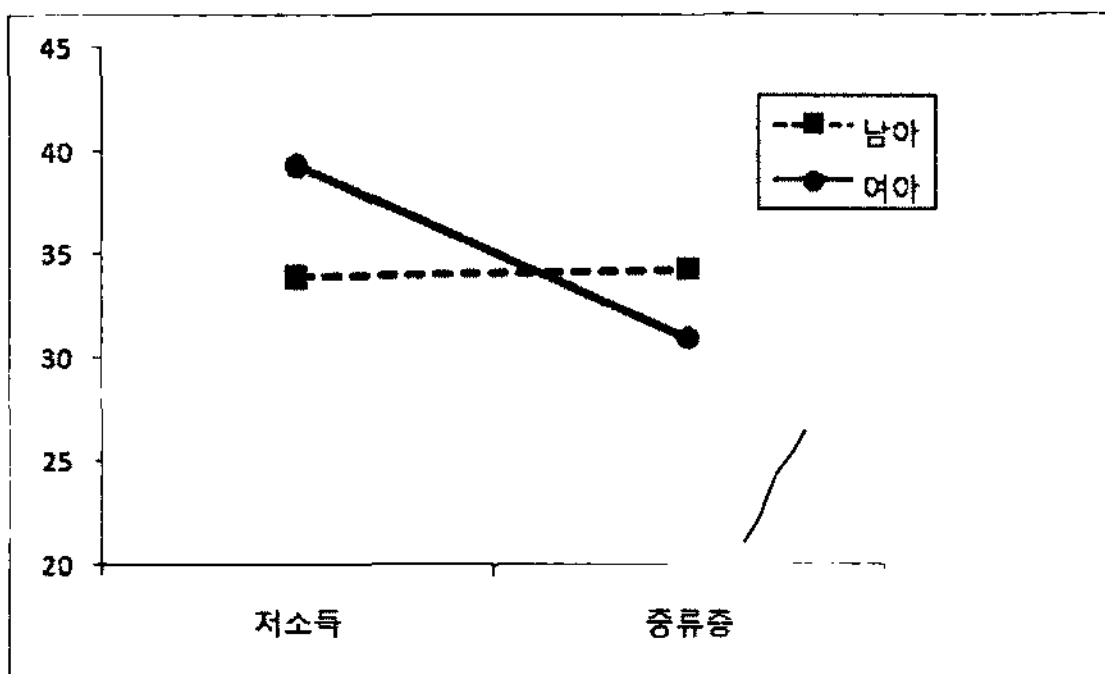
정서중심 반응과 문제중심 반응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높았고 스트레스 반응과 차별적 반응 점수는 다른 점수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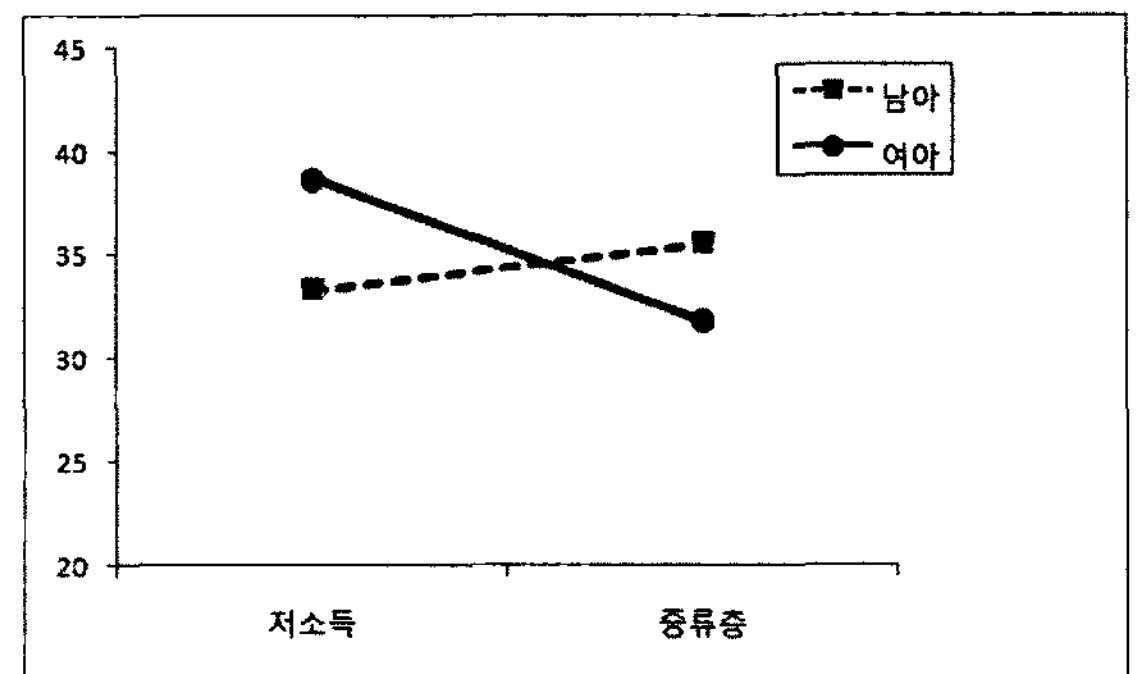
〈표 8〉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다변량 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변량 유의성 검증		단변량 F검증	
		Pillai's Trace	F	자승합 ¹⁾	F
소득수준	스트레스 반응	.124	2.021	121.989	2.469
	처별적 반응			361.190	5.347*
	정서표현격려 반응			25.641	.271
	정서중심 반응			215.020	3.022
	문제중심 반응			149.973	2.840
	최소화 반응			11.871	.137
성별	스트레스 반응	.028	.407	16.527	.335
	처별적 반응			22.621	.335
	정서표현격려 반응			45.294	.479
	정서중심 반응			12.292	.173
	문제중심 반응			2.784	.053
	최소화 반응			37.826	.436
소득수준×성별	스트레스 반응	.170	2.930*	479.719	9.711**
	처별적 반응			444.317	6.577*
	정서표현격려 반응			88.520	.936
	정서중심 반응			202.394	2.845
	문제중심 반응			47.596	.901
	최소화 반응			37.654	.434

¹⁾ 모든 독립변인의 자유도는 1이므로 평균자승은 자승합과 동일함.
* $p < .05$ ** $p < .01$



〈그림 1〉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에서 성별과 소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어머니의 처별적 반응에서 성별과 소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의 정서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정서반응의 하위 구성 요인인 스트레스 반응, 처별적 반응, 정서표현격려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반응에서만 소득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정서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성별이 어머니의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을 보면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

응에서 성별과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9.711, p < .01$). 〈그림 1〉에서 제시한대로 여아의 경우 저소득층 어머니가 중류층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였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중류층 어머니가 저소득층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실제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수준 사이에 스트레스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t=3.260, p < .01$) 남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347, p<.05$). 즉 저소득층 어머니($M=36.98, SD=8.28$)가 중류층 어머니($M=32.91, SD=8.53$)보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서 성별과 소득수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F=6.577, p<.05$), <그림 2>를 보면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저소득층 어머니가 중류층 어머니보다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수준 사이에 어머니가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t=3.305, p<.01$) 남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 정서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을 중류층 유아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정서사회화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을 소득수준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은 중류층 유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태학적 위험성,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가져오고 아동의 정서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Raver & Spagnola,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낮은 수준의 정서지식이 사회문제, 철회와 관련이 있으며 빈곤 가정 아동의 유아기 때 정서지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사회적 기능을 예측한다는 연구(Izard, Fine, Schultz, Mostow, Ackerman, & Youngstrom, 2001; Schultz *et al.*, 2001)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지식 발달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정서지식과 관련 있는 가족 내의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정서적으로 표현적인 환경,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는 환경이 아동이 단서, 상황, 정서적 경험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게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Denham *et al.*, 1994; Dunn & Brown, 1994; Garner *et al.*, 1994; Nixon & Watson, 2001; Schultz *et al.*,

2001).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지식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원망의 부족 같은 각종 생활스트레스나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으면서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의 정서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이강이, 성미영, 2003; Schultz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른 정서지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만족도나 부부갈등 등 여러 가지 가족 경험의 차이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조사결과, 유아의 정서지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서이해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이혜련, 최보가, 2002; Denham *et al.*, 1994; Schultz *et al.*, 200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자녀 수가 적어지고 남아와 여아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많이 변화한 가정과 사회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자가 유아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식 검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의 연구방법과 달리 정서이해에서 성차가 나타난 연구(Fabes *et al.*, 1994; Garner *et al.*, 1997)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를 관찰한 연구로 자녀가 부모의 의도나 부모의 기대치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을 반영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방법은 아동의 언어적 능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아가 언어발달이 빠르고 언어구사 수준이 남아보다 높아서 생긴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정서지식에서 성차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방법들을 상호보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분노 유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 반응은 유아의 또래에 대한 분노정도 지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유아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중류층 유아보다 또래의 분노 정도를 더 높게 지각했다. 또래의 분노 정도를 높게 지각한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의 분노 정도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민선, 박성연, 1999)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족원들 사이에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주 경험한 저소득층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분노 유발 상황에서 또래의 분노 정도를 높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민선, 박성연, 1999; Murphy & Eisenberg, 1997).

한편 남아가 여아보다 분노를 더 직접적으로 발산한다는 Fabes와 Eisenberg(1992)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분노 유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 반응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Murphy와 Eisenberg(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노 유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반응에 성차가 있는지 보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유아의 반응을 끌어내는 방법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반응을 평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 반응에서는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저소득층 어머니가 중류층 어머니보다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한유미와 손경화(2004)의 연구나 계층이 높을수록 처벌적인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보인다는 Garner와 동료들(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Garner와 동료들(1994)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이 아동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시키고, 정서유발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Eisenberg와 동료들(1996)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보이는 최소화나 처벌적 반응이 아동의 인기도, 사회적 기술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유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정서적으로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유능하게 행동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 모두에서 소득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층 여아의 어머니가 중류층 여아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어머니가 남아에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권연희, 이종희, 2005)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남아에게 보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아에게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반면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반응은 소득수준과 성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송하나, 2006)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보다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 반응 또한 소득수준이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아버지가 중산층 아버지보다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엄격한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Bhavnagri와 Parke(1991)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사회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아버지는 여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의 차이를 감안해 추후 연구에서 CCNES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동의 놀이시간에 정서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발달과 저소득층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지식 및 정서 반응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저소득층 부모의 정서반응을 중류층 유아, 그리고 중류층 부모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중류층 유아와 비교해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낮으며 또래의 분노정도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 발달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인 경제 문제와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저소득층 부모가 중류층 부모보다 자녀의 사회 정서적 요구에 관심과 반응을 덜 보이며 자녀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 체벌과 강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Alvy, 1988; Conger et al., 1984; Ogbu, 1981)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행동은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와의 사이에서 행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으로 더 잘 기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과 관련이 있으므로(Garner et al., 1994),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정서사회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비교하기 위해 표집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크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표집을 했는데, 유아의 정서반응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

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조사자의 직접면담과 부모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유아의 반응이나 부모의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연, 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권연희, 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대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민선, 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성미영(2006).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과 유아의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5), 59-68.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어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이강이(2002). 가정의 소득수준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6.
- 이강이, 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 지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2003). 시설보호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1(5), 41-58.
- 이은주, 이재연(1999). 빈곤층 아동의 또래 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7.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한유미,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Ackerman, B. P., Izard, C. E., Schoff, K., Youngstrom, E. A., & Kogos, J. (1999). Contextual risk, caregiver emotiona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ix-and seven-year-old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15-1427.
- Alvy, K. T. (1988). Parenting programs for black parents. In L. A. Bond & B. M. Wagner(eds.), *Families in transition: Primary prevention programs that work*(pp. 135-169). Newbury Park, CA: Sage.
- Bhavnagri, N. P.,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23-440.
- Brody, L. (1985).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Brown, J. R., & Dunn, J. (1996). Continuities in emotion understanding from three to six years. *Child Development*, 67, 789-802.
- Campos, J., Campos, R., & Barrett, K.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 K., Lahey,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6), 2234-2247.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 Cook, E. T., Greenberg, M. T., & Kusche, C. A. (1994).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understanding,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Behavior, 22*, 205-219.
- Cortes, R. C. (2002). Parents' awareness and management of emotion: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outcomes. Doctorial dissertation of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Denham, S. A., Zenwick-DeBard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488-508.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pp.57-74)*. San Francisco: Jossey-Bass.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C.,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 (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 109-128.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K.,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Fabes, R. A., Eisenberg, N.,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 285-310.
- Garner, P. W., Jones, D. C., Gaddy, G., & Rennie, K. M. (1997). Low-income mothers' conversations about emotion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6*(1), p37-52.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with peers: the roles of gender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11/12), 675-691.
-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Hoffman, M. L. (1994). Discipline and intern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26-28.
- Hoffner, C., & Badzinski, D. M. (1989). Children's integration of facial and situational cues to emotion. *Child Development, 60*(2), 411-22.
- Huston, A. C., McLoyd, V. C., & Coll, C.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Iannotti, R. J. (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s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Izard, C., Fine, S., Schultz, D., Mostow, A., Ackerman, B., & Youngstrom, E. (2001).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Science, 12*, 18-23.
- Mize, J., & Ladd, G. W.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behavior and status from their interpersonal strategies: A comparison of verbal and enactive responses to hypothetical social dilemma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82-788.
- Murphy, B. C.,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Nixon, C. L., & Watson, A. C. (2001). Family experiences and early emotion understanding. *Merrill-Palmer Quarterly, 47*(2), 300-322.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A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2), 413-429.
- Raver, C., & Spagnola, M. (2002). "When my mommy was angry, I was speechless":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context of economic hardship. *Marriage & Family Review, 34*, 63-88.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Schultz, D., Izard, C. E., Ackerman, B. P., & Youngstrom, E. A. (2001). Emotion knowledge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Self-regulatory antecedents and relations to social difficulties and withdraw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53-67.

Sroufe, L., Schork, E., Motti, E., Lawroski, N., & LaFreniere, P. (1983).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pp. 289-319). New York: Plenum.

Zahn-Waxler, C., Cummings, E. M., & Cooperman, G.

(1984).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hood. In G. J. Whitehurst (Eds.), *Annals of child development*(pp. 45-106). Connecticut: JAI Press Inc.

(2007년 6월 29일 접수, 2007년 8월 27일 채택)